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을 지내면서 묵상해봅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성모님의 삶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얼마나 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영광을 얻으셨기에 참으로 행복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잉태의 순간,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 그 당시 율법에 따른 목숨의 위협, 마굿간에서의 출산등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삶 속에서 고통과 연민과 배신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 속에서 너무나도 외로우신 성모님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순종과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어머니가 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한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인내와 사랑 그리고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성모님을 생각하며

성모님을 따르면
성모님을 부르면
성모님을 생각하니
성모님이 붙드시니
성모님이 감싸면
성모님이 이끄시니
성모님의 도움으로



성 베르나르도

길 잃지 않고,
실망치 않네.
헤매지 않고,
떨어질 리 없네.
두렵지 않고,
지치지 않아,
목표에 이르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다네
한 가닥 외길, 여러 갈래 길,
또다른 길이.
착한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다른 영혼들은
이리저리 헤매네,
저 안개 낀 들판 사이를.
길은 열려 있다네, 누구에게나.
높은 길과 낮은 길이.
그대는 골라야 하리,
제 영혼이 가야 할 길을.”

(John Oxenham)